

러시아 내 이주노동자 문제와 정책적 과제: CIS 국가 간의 노동이주를 중심으로*

변현섭** 김영진***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노동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 II. 러시아의 노동이주 유입 현황과 원인 | V. 결론 |
| III. 노동이주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 | |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최근 러시아 노동이주의 현상을 신고전학파의 배출-흡인 요인과 이중노동시장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또한 이주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미국 다음으로 이주민이 많은 국가인 러시아는 인구감소, 특히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불가피하며, 열악한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노동집약적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할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의 이주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반면에 주요 이주노동자의 송출국인 소련방 국가들의 국민들은 보다 나은 임금과 가족의 생계유지라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러시아로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고 있다.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구소련 국가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러시아 유입이 증가했지만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2-B00013).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제1저자.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교신저자.

문에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쿼터제와 노동허가제를 통한 규제에 초점을 둔 이민정책 및 단속을 통한 추방과 처벌 강화 등의 억압적인 이민정책은 불법 이주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적인 자원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이주정책이 필요하다. 즉, 러시아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점에서 노동이주를 바라봐야 한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과 같은 대외 환경 변화에 맞게 CIS에 대한 대외정책적 관점에서 이주문제를 바라보고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모델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 주제어: 노동시장, 노동이주, 이주노동자, 독립국가연합, 이주정책

I. 서론

노동이주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주 유입국들에서의 노동시장의 분절화(segmentation)와 같은 새로운 경제적 현상을 야기하며, 각국 노동시장의 특별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이주는 사회-노동 이동의 가장 중요한 형태 중의 하나이며,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이주는 노동력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업, 고용 불안정, 임금수준 저하, 사회적 긴장과 갈등 조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정재원 2009/2010, 133).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 면적에도 불구하고 1.4억여 명에 불과한 적은 인구로 인해 인구 문제 해결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나라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가능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러시아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 UN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CIS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자금을 자국으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송금액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¹⁾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러시아에서 CIS, 특히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왔다.

러시아에는 매년 3-5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약 60만 명의 무비자 이주자들이 체류 기간을 위반하고 있다.²⁾ 이들 불법 이민자들은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인종적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곤 한다.

이러한 많은 이주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 소련권 출신 노동자들이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범죄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또 다른 인권침해와 범죄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재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 다시 유라시아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고 2015년 1월부터는 노동을 비롯한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태도에서 벗어나 통합을 위한 새로운 이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의 노동이주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서구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본격화되고 있다. 김태연(2007)은 이주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면서 1990년대 초반 구소련국가로

1)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유라시아 국가로의 송금액은 전년 대비 10.8% 신장한 42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송금 유입액이 가장 큰 국가는 우크라이나로 2013년에 93억 달러이며, 이는 GDP의 4.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GDP 대비 송금 유입액이 큰 국가로는 타지키스탄 41억 달러(GDP의 42.1%), 키르기스스탄 23억 달러(GDP의 31.5%), 몰도바 20억 달러(24.9%), 아르메니아 24억 달러(GDP의 21.0%) 등의 순이다. World Bank (2013), "Migration and Remittance Flows: Recent Trends and Outlook, 2013-2016",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SPECTS/Resources/334934-1288990760745/MigrationandDevelopmentBrief21.pdf>. (2014년 9월 19일 검색)

2) РИА Новости (2014), "Москва откроет пункты самоподготовки к экзаменам для мигрантов", <http://ria.ru/society/20140731/1018233327.html>. (2014년 9월 20일 검색)

부터의 대규모 이주자 유입으로 발생한 러시아에서 이주자 혐오증으로 표출된 루스키 민족주의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김성진(2008)은 이주체제론의 관점(Mansor & Quillin 2007, Kritz & Zlotnik 1992)에서 포괄적인 이주모델을 제시하였다. 정재원(2009/2010)은 세계화 과정의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로서 국제노동이주를 구조 이론적 틀에서 러시아 노동이주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채문(2011)은 이민정책이 궁극적으로 확대와 포섭이라는 방향으로 수렴된다고 본 프리먼(Freeman, 1995)의 신고전파 정치경제학적 모델에 기초하여 러시아 이민정책의 발전과정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민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병국(2013)은 캐슬스와 밀러(Castels & Miller)의 이민자통합정책이론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귀환 이주민에 대한 이주 및 노동정책을 분석하였다.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IOM)는 CIS 내 이주와 관련해 역사적, 경제적, 인구학적, 정치적, 심리적, 사회·인종적, 그리고 지리적 요인 등을 이주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CIS 국가들은 과거 소련의 공화국으로 러시아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CIS 내 임금격차와 노동 수요의 차이, 그리고 학위나 전문 자격증의 상호 인정이 이주를 촉진하고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CIS 내 인구 보완성이 존재하며, 무비자 입국 레짐, 역내 통합기구, 그리고 러시아 내 CIS 노동이주에 대한 선호, 그리고 노동이주 관련 쌍무조약 등 정치적 요인도 이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들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이주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CIS 내에는 과거 한 국가였었다는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CIS 내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소비에트 시기의 역사적 경험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상업적 네트워크는 물론 소비에트 시기 각 공화국에 존재했던 산하기구들 간의 동료 네트워크,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친인척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끝으로 CIS 국가들 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이동의 편의성 역시 이주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진

2012, 215).

본고에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러시아 노동이주의 요인을 그동안 연구자들이 소홀이 다루어 왔던 경제적 관점에서 보다 자세히 규명하고자 한다. 즉, 국제노동이주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에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미시적 관점의 신고전학과와 이를 발전시킨 신이주경제학, 그리고 국가수준의 노동수요라는 거시적 관점의 이중노동시장이론에 근거하여 현재 러시아의 노동이주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신고전학과는 국제이주의 배경으로 ‘배출-흡인(push-pull)’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제이주는 보다 나은 임금과 고용기회, 사회복지 수준의 차이 등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1980년부터 이주의 결정단위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서 가계나 공동체 단위의 결정으로 인식하고, 이주 결정의 원인도 소득의 극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시장실패 등 송출국에서의 위기회피 등을 지적하는 신이주경제학(new economics of migration)이 제기되었다. 이들 두 이론이 개인이나 가계의 수준에서 이주를 분석하는 미시모델이라면, 이중노동시장 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은 거시적 관점에서 이주를 분석하려는 시도로 이주가 선진산업국가의 노동시장이 분화되면서 나타나는 저임금 노동시장과 같은 부차적 노동영역에서의 외국인 노동력의 수요에서 기인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성진 2008, 524 재인용).

따라서 이러한 ‘배출-흡인’ 모델에 의한 개인 또는 가계의 합리적 선택 이론은 특히 배출 국가인 CIS 국민들의 노동이주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열악한 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노동집약적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할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의 이주를 끊임 없이 필요로 하고, 이에 따라 이주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은 구소련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러시아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의 유형은 국제-국내, 강제-자발적, 합법-불법, 정치적-경제·사회적, 일시-영구적 이주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몇몇 유형의 경우 다소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광대한 영토와 경제·사회적 지역격차에서 비롯된 국내 이주 현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자발적 이주와 국내외 폭력사태 등에서 비롯된 난민 문제, 사회주의체제 변혁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이주민(statistical migrants)’ 유입과 배출 등 다양한 이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성진 2008).

본 논문에서 이러한 이주의 유형 중 1990년 중반 이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이주(labor migration) 문제를 주 대상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시기의 특정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이주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그동안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주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주의 기원이나 지속, 확산에 관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이 정립되지 않아 종종 귀납적 일반화의 수준에 머무르고 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주의 정치, 문화적 측면 및 그 과정이나 결과, 영향, 이주자의 적응 및 정착, 그리고 이주와 사회구조, 정치체제, 인간의식의 상호작용에 대해선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주자와 도착주민의 갈등과 긴장관계의 문제 혹은 이주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이주자에 대한 반응과 태도의 문제 역시 주목할 만한 연구주제이다.³⁾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인들이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현재 이민정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의 상황 변화에 맞게 러시아 이민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결국, 이 글에서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러시아의 이주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배출-흡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원인을 분석하고(Ⅱ장) 최근의 그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주자와 도착 주민의 갈등 및 그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 문제와 정책과제를 검토한다(Ⅲ장). 나아가, 현재 러시아 이민정책의 문제점과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Ⅳ장).

3) 김태연(2007, 218)은 이주자와 도착 주민의 갈등과 긴장관계의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주문제를 루스키 민족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II. 러시아의 노동이주 유입 현황과 원인

1. 러시아 내 노동이주 현황

구소련권 국가 국민들의 노동이주는 크게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독일 등 EU 국가와 러시아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소련권 국가의 대 EU 및 러시아와 대외관계의 특성에 따라, 이들 국민들의 국제이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2008년 8월 초 남오세티야 분리독립과 관련된 러시아-조지아전쟁 전까지 조지아 이주노동자의 50%가 러시아를 선택하였으나 이후 러시아로의 여행 제한에 따라 터키를 선호하고 있으며, 친서방 정책을 취하고 있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 국민의 러시아로의 노동이주는 58%와 43%로 다른 구소련권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반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으로 이주가 자유로운 벨라루스와 아르메니아는 이주노동자의 80%와 70%인 절대 다수가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특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의 러시아로 노동이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0년 기준 러시아 노동허가의 약 55%가 중앙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 발급되었다. 러시아 이주노동자 중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4%에서 2013년 40%로 지난 10년간 상당히 증가하였다(Weinar 2014).

러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2000년대 러시아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율은 하락 반전하였으나 그 수는 여전히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 이민청에 따르면, 2013년에 러시아로 입국한 외국인이 1,130만 명이며, 이 중 약 300만 명이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⁴⁾

4) World Bank (2013), "Migration and Remittance Flows in Europe and Central Asia: Recent Trends and Outlook, 2013-2016",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3/10/02/migration-and-remittance-flows-in-europe-and-central-asia-recent-trends-and-outlook-2013-2016>. (2014년 9월 19일 검색)

<그림 1> 러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추이⁵⁾



* 공식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자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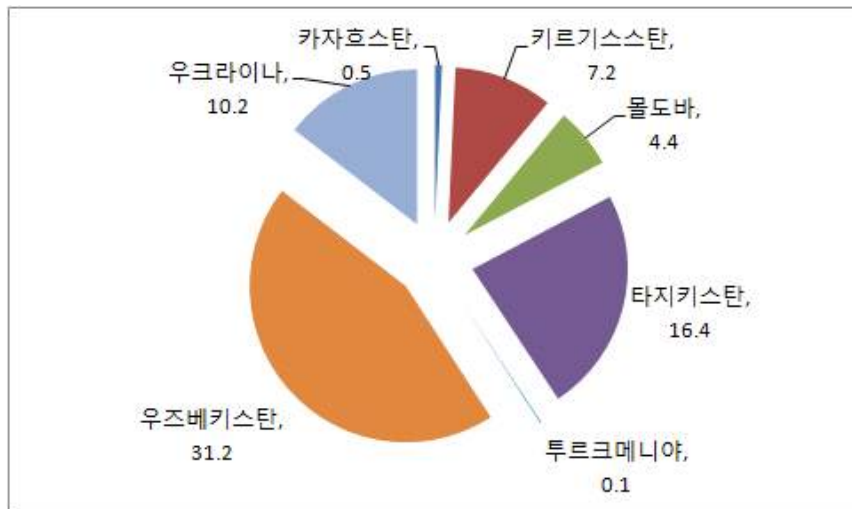
하지만,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자 수를 기준으로 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약 164만 명이며, 이 중 CIS 회원국 국민이 2010년 기준 약 124.7만 명으로 그 비중은 76.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31.2%), 타지키스탄(16.4%), 우크라이나(10.2%), 키르기스스탄(7.2%) 출신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이주노동자는 1996년 러시아와 체결된 정부 간 협정으로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어 3개월 만에 국적 취득이 가능했고,⁶⁾ 국적 취득 시 노동허가가 필요 없어 많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노동 활동을 위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것을 고려하면 타지키스탄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5)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3),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http://www.gks.ru/bgd/regl/b13_36/Main.htm. (2014년 9월 15일 검색)

6) 1996년 3월 28일 체결된 러시아-키르기스스탄 국적 취득 간소화 절차에 관한 양국 간 협정은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11월 9일부로 종료되었다. K-News (2012), “Россия отменила соглашение с Кыргызстаном об упрощенном порядке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http://www.knews.kg/politics/24733_rossiya_otmenila_soglashenie_s_kyrgyzstanom_ob_uproschenom_poryadke_polucheniya_grajdanstva. (2014년 9월 20일 검색)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식적인 수치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실제 불법 노동자를 포함할 경우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그들이 고용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보장제⁷⁾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고용주로서는 그만큼의 이익이 더 생기기 때문이다.

<그림 2> 러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 CIS 회원국 국민 비중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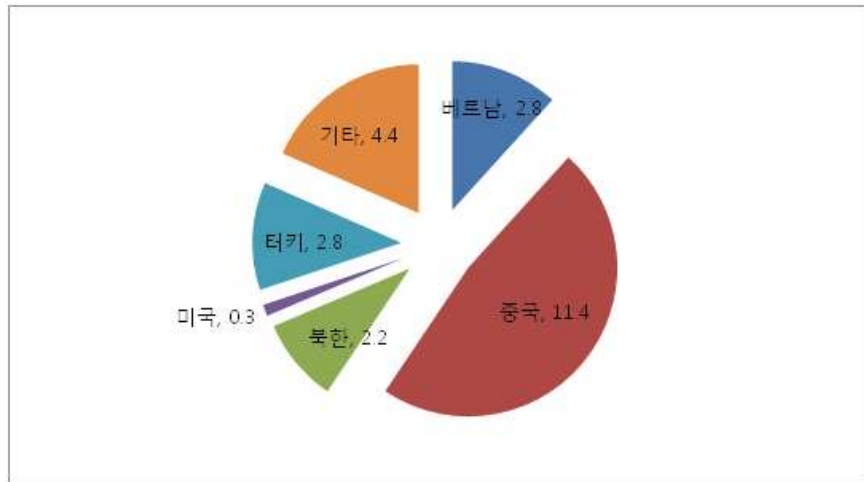


7) 2014년 기준 러시아에서 고용주가 노동자 임금 지불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은 개인소득세 13%, 국민연금 22%, 의료보험 5.1%, 사회보험 2.9% 등 월급의 총 43%에 이른다. Википедия (2014), “Налог на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https://ru.wikipedia.org/wiki/%D0%9D%D0%B0%D0%BB%D0%BE%D0%B3_%D0%BD%D0%B0_%D0%B7%D0%B0%D1%80%D0%B0%D0%B1%D0%BE%D1%82%D0%BD%D1%83%D1%8E_%D0%BF%D0%BB%D0%B0%D1%82%D1%83. (2014년 9월 26일 검색)

8) 조지아는 2009년 8월부터 CIS 회원국에서 탈퇴하여 통계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09년 전까지는 전체 CIS 이주노동자에서 약 5천 명 이하로 0.5%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4),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http://www.gks.ru/bgd/regl/b13_36/Main.htm. (2014년 9월 15일 검색)

CIS 국가 이외 출신의 노동자가 39.2만 명으로 23.9%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중국(11.4%), 베트남(2.8%), 터키(2.8%)에서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3> 러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 비CIS 회원국 국민 비중⁹⁾ (단위: %)



2. 노동이주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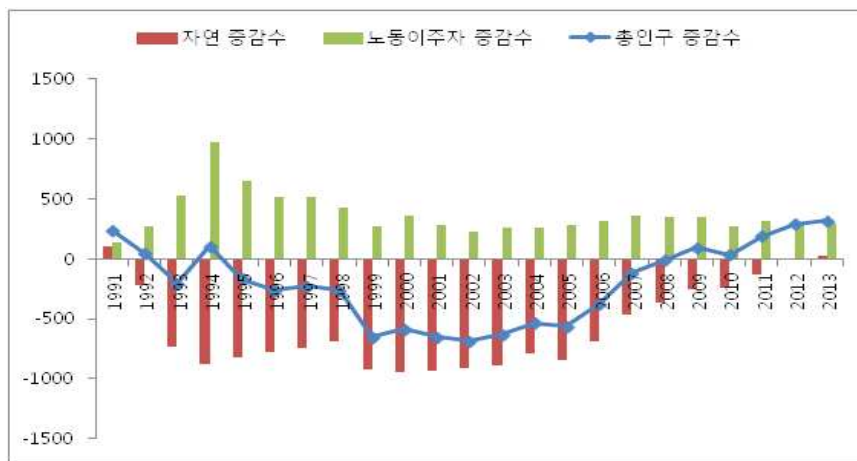
- (1) 러시아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중노동이론적 관점)

러시아의 인구는 1990년 소연방 해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최근에 출산 장려 정책 및 복지 정책의 효과로 출생률의 증가와 평균 수명이 증가함으로써 약간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기에는 이러한 자연증가세의 원인도 있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러시아의 급격한 인구 감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러시

9)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4),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http://www.gks.ru/bgd/regl/b13_36/Main.htm. (2014년 9월 15일 검색)

아 통계청 자료의 러시아 총인구 변화의 구성요소를 보면, 2006년부터 인구의 자연적인 감소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2012년부터 자연증가자 수가 플러스로 돌아섰고, 여기에다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전체 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러시아의 총인구 연간 증감 원인¹⁰⁾ (단위: 천 명)



러시아 통계청의 2031년까지 러시아 인구 전망 자료에서도 2022년까지는 1억 4,450만 명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전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가능인구는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출생률 증가보다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망률 감소의 영향이 더 크며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자연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로 새로 진입해야 할 노동가능 연령층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10)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4), “Компоненты измен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opulation/demography/#. (2014년 9월 15일 검색)

<그림 5> 러시아 전체 인구 및 노동가능 인구 전망¹¹⁾ (단위: 백만 명)



러시아 이민청장 콘스탄틴 로모다노프스키는 러시아 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31년까지 러시아의 인구가 1억 4,320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없이는 러시아 경제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출생률의 증가로 인구가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15-20년 동안 유일한 노동 자원의 추가 공급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¹²⁾ 또한 2012년 모스크바 기업들의 24%가 생산을 위한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에는 그 응답률이 35%로 늘어났다.¹³⁾ 실제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몇 년 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 될 15-24세까지 젊은이의 2013년 현재 인구 비중이 2008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60-64세의 연금생활자 비중은 3.4%포인트 증가하였다.

11) 러시아 통계청은 노동가능인구를 남성은 16-59세, 여성은 16-54세로 규정하고 있다.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4),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прогноз до 2030 года”,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opulation/demography/#. (2014년 9월 15일 검색)

12) HR-Portal (2013), “ФМС: отече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ке не обойтись без иностранных мигрантов”, <http://hr-portal.ru/news/fms-otechestvennoy-ekonomike-ne-oboitis-bez-inostrannyh-migrantov>. (2014년 9월 21일 검색)

13)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сквы (2013), “Отчет 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города Москвы в 2012 году”, http://s.mos.ru/common/upload/2012-130430_1.pdf. (2014년 9월 15일 검색)

<표 1> 러시아 인구의 연령 그룹별 변화 추이 (단위: %, % point)

연령별 그룹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08-2013년 차이
15-19세	9.3	8.6	8	7.4	6.9	6.9	-2.4
20-24세	11.1	11.1	11	10.9	10.5	10.5	-0.6
25-29세	10.1	10.4	10.7	10.8	11.2	11.2	1.1
30-34세	9.4	9.6	9.7	9.9	10.1	10.1	0.7
35-39세	8.6	8.8	9.1	9.2	9.4	9.4	0.8
40-44세	8.8	8.4	8.3	8.3	8.5	8.5	-0.3
45-49세	10.6	10.4	10	9.5	9.1	9.1	-1.5
50-54세	9.8	10.1	10.1	10.4	10.5	10.5	0.7
55-59세	8.5	8.7	8.9	9.1	9.3	9.3	0.8
60-64세	4.2	4.9	5.4	6.4	7.6	7.6	3.4
65-72세	9.6	9.0	8.8	8.1	6.9	6.9	-2.7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

* Капшлюшников Р. & Ощепков А.(2014)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CIS 등 이웃 및 기타 국가들의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 감소와 특히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재래시장에서의 도소매업, 각종 공사 현장, 주택 및 공공 시설물 관리 등 이른바 ‘어려움(difficult)’, ‘위험(danger)’, ‘더러움(dirty)’으로 지칭되는 ‘3D’ 업종의 육체노동자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교수(Denisenko & Varshavskaya 2013)가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4%가 소매업 및 자동차 및 가정용품 수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2.7%는 건설업, 13.2%는 공공시설물 관리, 8.2%는 운송업에 종사하는 등 전문 기술자가 아닌 단순기능 근로자였다(<표 1> 참조). 이는 모스크바시의 통계 데이터와도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모스크바시가 발표한 2012년 모스크바시의 국가 프로그램 실행 및 사회-경제발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도소

매업에 25.2%, 건설업에 23.2%, 주택 및 도로 등 공공시설 관리에 21.6%, 기타 분야에 30.0% 종사하고 있다(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сквы 2013).

<표 2>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업종별 취업 분포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제조업	3.8	4.4	2.3
전기, 가스 및 수도	1.0	1.3	0.1
건설업	22.7	30.4	2.5
소매업, 자동차 및 가정용품 수리	36.4	30.0	53.3
호텔 및 레스토랑	6.3	4.0	12.5
운송업	8.2	9.8	3.9
공공 시설물 관리	13.2	13.7	11.8
가정부	1.3	0.4	3.6
기타	6.9	5.7	9.9
무응답	0.2	0.3	0.1

* Denisenko M. B. & Varshavskaya Y. J.(2013)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러시아인 노동자들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1주일 내내 일한다는 응답자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34.7%는 6일간 일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노동시간은 러시아 노동자들보다도 1-2시간 많은 10-12시간을 일한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53%). 특히,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업, 가정부로 일하는 이주자의 노동시간이 길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1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약 61시간이었는데 이는 동일 업종의 러시아인들 1주일 평균 노동시간보다 39% 많은 시간이다. 또한 과도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6.2%는 본업 이외의 부업까지 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로 인해 정식 계약 관계가 아닌 구두(oral)에 의한 비공식 고용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65%), 가정부(77.8%) 등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표 3> 러시아 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의 근무시간 비교 (단위: %)

취업 업종	이주노동자 근무시간 (hours)		러시아 노동자 근무시간 (hours)		러시아 노동자(=100) 대비 이주노동자의 근무시간(%)	
	주당 평균	일 평균	주당 평균	일 평균	주당 평균	일 평균
제조업	53.5	9.85	44.7	9.61	120	102
전기, 가스 및 수도	49.2	8.43	N/A	N/A
건설업	59.5	9.81	48.5	9.09	123	108
소매업, 자동차 및 가정용품 수리	65.0	10.31	45.5	9.51	143	108
호텔 및 레스토랑	63.4	11.11	N/A	N/A
운송업	58.9	11.13	46.0	9.98	128	112
공공 시설물 관리	58.5	9.62	42.3	9.52	138	102
가정부	66.4	11.19	N/A	N/A
합계	61.1	10.18	43.8	9.43	139	108

* Denisenko M. B. & Varshavskaya Y. J.(2013)

(2) 임금격차에 따른 CIS 이주노동자들의 합리적 선택(배출-흡인 모형)

이와 같이 러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사실상 CIS 회원국 국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들 송출 국가들의 경제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 지역 내에서 1990년대 말 시장경제로의 이행 및 구조개혁의 강화와 함께 노동이주가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이주를 이끄는 핵심 요인은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과잉, 일자리와 기회 부족 등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소련지역에서 노동 이주는 빈곤과 고용기회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김영진 2012, 3). 구소련 국가 국민들의 노동이주는 대부분 자국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러시아 또는 타국으로 떠난 경우이다. 실제 통계 데이터(<표 3>)에서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아르메니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순 이주자 비율(net migration rate)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이주로 인한 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원인은 높은 실업률과 낮은 소득 수준으로 빈곤층 인구가 20-30%를 차지하여 자국에서 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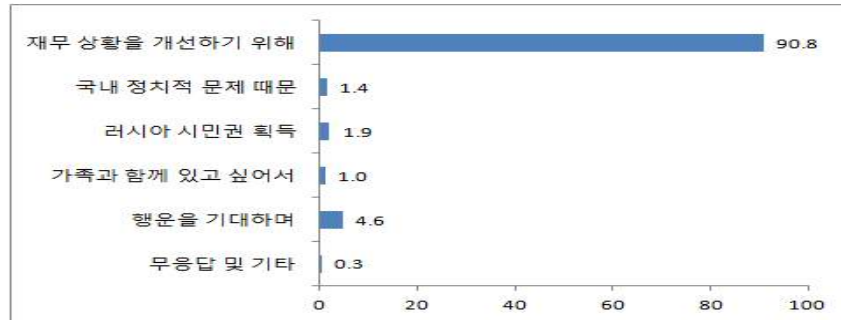
<표 4> 구소련 국가의 주요 경제-인구 지표

	인구 (백만 명, 2014년)	GDP 성장률 (2013년)	1인당 GDP (PPP 기준, \$, 2013년)	실업률(% 2013년)	빈곤층 이하 인구 비율 (%)	순 이주자 비율* (인구 천 명 당, 2014년)
아제르바이잔	9.7	5.8	10,800	6.0	6.0 (2012년)	0
아르메니아	3.0	4.6	6,300	17.3 (2012년)	35.8 (2010년)	-5.88
벨라루스	9.6	2.1	16,100	1.0 (2009년)	27.1 (2003년)	0.78
조지아	4.9	2.5	6,100	15.0	9.2 (2010년)	-3.25
키르기스스탄	5.6	7.4	2,500	8.6 (2011년)	33.7 (2011년)	-6.16
몰도바	3.6	8.9	3,800	5.8	21.9 (2010년)	-9.8
타지키스탄	8.1	7.4	2,300	2.5	35.6 (2013년)	-1.17
투르크메니스탄	5.2	12.2	9,700	60 (2004년)	30.0 (2004년)	-1.86
우크라이나	44.3	0.4	7,400	8.0	24.1 (2010년)	-0.06
우즈베키스탄	28.9	7.0	3,800	4.9	17.0 (2011년)	-2.46
카자흐스탄	17.9	5.0	14,100	5.3	5.3 (2011년)	0.42
러시아	142.5	1.3	18,100	5.8	11.0 (2013년)	1.69

* 순 이주자 비율(net migration rate)은 해당 년도 중기의 총인구를 기준으로 1,000명당 이주자의 입국 및 출국 인원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플러스(+)는 이주로 자국을 떠나는 인구보다 자국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더 많다는 의미이며 마이너스(-)는 타국으로 이주를 떠나는 인구가 많다는 의미이다(CIA, The World Factbook 참조).

또한 이러한 이주의 원인이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러시아로 이주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키르기스스탄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 이주의 목적이 자신 또는 가족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이 90.8%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6> 키르기스스탄 이주노동자의 러시아로 이주 목적 (단위: %)



* Evgeny Vinokurov & Vladimir Perebojev(2013)

설문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소련 국가들의 이주노동자가 러시아에서 받는 임금은 자국의 평균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이주의 원인을 각국의 임금격차에 따른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적 이론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표 5>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의 평균 임금 비교

	CIS 국가들의 평균 임금 (2011년 8-10월 기준)		러시아에서 이주노동자의 평균 임금(US\$)	CIS 국가 평균 임금 대비 러시아 이주노동자의 임금 수준(%)
	US\$	러시아 평균 임금 대비 수준(%)		
아제르바이잔	462	61	798	173
아르메니아	304	40	780	257
키르기스스탄	216	29	602	279
몰도바	271	36	756	279
타지키스탄	98	13	592	604
우크라이나	340	45	820	241
우즈베키스탄	N/A	...	588	...

* Denisenko M. B. & Varshavskaya Y. J.(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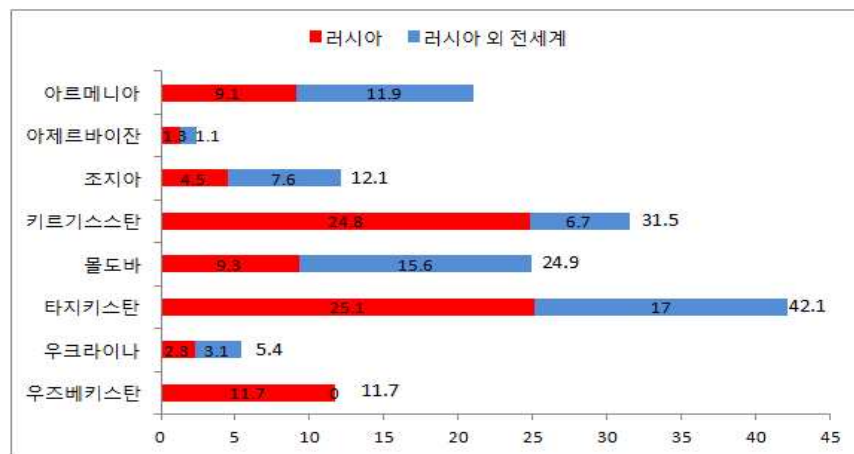
이주자들이 본국으로 보낸 송금은 개별 가계의 경제생활과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자원빈국으로 농업국가인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등에서 특히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2013년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러시아로 간 이주노동자들이 게으른 사람들이며 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으며 월 100유로의 월급이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여기는데 그런 일자리조차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이 없었으면 폭동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거나 독재 정권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송금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들 구소련 국가, 특히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로 나가 일하는 구소련 주요 국가의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르메니아 21%, 조지아 12%, 키르기스스탄 31.5%, 몰도바 25%, 타지키스탄 42%, 우크라이나 5.5%, 아제르바이잔 2.5%, 우즈베키스탄 12% 등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이 GDP에서 각각 24.8%, 25.1%, 11.7%을 차지하여 러시아에서 이주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구소련 국가별 러시아 및 전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의 송금액 비교¹⁴⁾ (단위: 2013년 GDP 대비 비중, %)



송금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송출국의 투자를 자극하고 경제의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가 보낸 송금의 실제 사용은 이러한 목적과 다르다. 종종 이주 자체의 비용과 관련되는 채무와 기초 필수품이 충족되면 가족이 수취하는 송금의 상당 부분은 내구재와 주택구매에 사용되며,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나 투기, 각종 저축에 지출되고, 최종적으로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된다(김영진 2012, 19-20 재인용).

Ⅲ. 노동이주에 대한 러시아인의 인식

러시아 이주문제에서는 정부와 국민 간에 이주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과 노동력 수급을 위해 보다 개방적인 이주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부정적이다(김성진 2012). 왜냐하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46,984건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CIS 국가 출신이 저지른 범죄는 2012년 대비 8.0% 증가한 40,295건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85.8%를 차지하였다. 반면, 2013년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인의 범죄는 13,214건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다.¹⁴⁾

모스크바의 경우 수사 당국은 2013년에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총 11,500건에 달하며 하루 평균 3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6.2% 증가한 것으로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14) Guardian (2015), "Russia's rouble crisis poses threat to nine countries relying on remittance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jan/18/russia-rouble-threat-nine-countries-remittances>. (2015년 1월 20일 검색)

15)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Ф (2014), "Состояние преступности в России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http://mvd.ru/upload/site1/document_file/H8NGnfdiEy.pdf. (2014년 9월 21일 검색)

및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¹⁶⁾

이와 같이 이주노동자들, 특히 CIS 국가 출신자들에 의한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들에 대한 반감이 커져 민족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실제 2013년 10월 모스크바 남쪽의 비를료보지역에서는 러시아 청년이 아제르바이잔 출신 이주노동자에 의해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직후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불법 이주노동자 추방을 촉구하며 대규모 소요 사태를 벌인 바 있다. 또한 경찰과 이민 당국은 이주민들이 운영하는 비를료보지역 청과물 시장을 급습해 1천여 명의 이주민들을 검거하고 그중 상당수를 추방했다.¹⁷⁾

2013년 7월에는 모스크바시 외곽에서 대형트럭과 시내버스가 충돌해 1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자갈을 싣고 가던 트럭이 과속으로 도로를 진입하려는 순간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해 발생한 사건으로, 운전사의 국적이 아르메니아라는 점과 2013년에만 7차례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낸 이력이 있으며, 러시아에서 발급받은 면허증 없이 아르메니아에서 발급된 면허증만으로 대형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¹⁸⁾

이러한 범죄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는, 저렴한 저숙련 노동자들의 취업은 현지 러시아인들의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대체하게 되고, 이들이 차지한 일자리에선 더 이상 러시아인들이 그만큼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는 취업을 원하지 않게 되었으며, 고용주들도 계속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¹⁹⁾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인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가 2014년 8월 22-25일 러시아의 46개 연방주체의 134곳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러시아 사회의

16) 김현태 (2014), “타지크인 노동자 모스크바서 한 해 500명 사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953251>. (2014년 9월 22일 검색)

17) 인터팩스 (2013), “Чиновники заплатились за Бирюлево”, <http://www.interfax.ru/russia/338372>. (2014년 9월 22일 검색)

18) Коммерсантъ (2013), “В результате ДТП в Новой Москве погибли 18 человек”, <http://www.kommersant.ru/doc/2233857>. (2014년 9월 22일 검색)

19)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김태연(2007)은 러시아의 민족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위협 요인 중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 설문조사 결과 (오차범위 3.4% 이내)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물가상승, 빈부격차, 경제위기, 실업, 부패 다음으로 이주자의 증가라고 응답하였다. 사실상 경제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사회 문제 중 부패 문제 다음으로 이주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그 응답 비율이 매년 증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최근 2년간 이전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 현재 러시아 사회의 위협 요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2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물가상승	70	64	82	76	72	73	67	69	71
빈곤문제	51	52	45	56	51	52	48	55	40
소득불균등	30	32	35	30	29	27	29	33	30
경제위기	27	28	29	38	36	32	32	29	28
실업	34	30	25	51	38	41	33	36	26
부패	25	27	27	28	33	27	35	39	36
이주자 증가	10	9	12	11	11	12	16	27	24
의료시설 부족	31	32	31	27	26	24	22	23	23
교육비 증가	28	26	26	16	20	18	20	20	16
마약중독자 증가	29	25	29	25	32	25	24	22	14

* 설문의 질문에 복수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합이 100%를 넘으며, 여러 가지 답변 중 응답률이 높은 상위 10개를 원본에서 발췌하였다.

다른 여론조사기관 WCIOM(전러시아 여론조사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모스크바 시민들의 경우 이주자 문제가 실업, 환경 및 부패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2010년)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로 교통정체 다음으로 CIS 국가에서 온 이주자 문제라고 응답하였다(2011년).²¹⁾

20) Левада-Центр (2014), “Проблемы, более всего тревожащие россиян”, <http://www.levada.ru/12-09-2014/problems-boleevsego-trevozhashchie-rossiyan>. (2015년 1월 20일 검색)

<표 7>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만큼 동의하는가
또는 동의하지 않는가?²²⁾ (단위: %)

	동의한다		일부 동의, 일부 비동의		동의하지 못한다		답변곤란	
	2005년	2013년	2005년	2013년	2005년	2013년	2005년	2013년
이주는 전반적으로 경제발전에 좋다	20	16	32	37	38	40	10	7
이주자들이 범죄, 부패 수준을 증가시킨다	63	65	23	23	10	8	3	4
이주자들은 러시아를 보다 개방적이고 새로운 사고와 문화로 만든다	17	15	31	34	43	45	9	5
이주를 통해 러시아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9	16	27	25	46	53	8	6
이주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만들고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	60	56	25	27	12	13	3	4
이주자들은 낮은 수준의 저임금 일자리에서 인력 부족을 메운다	50	47	29	34	17	15	4	4
다른 민족의 이주를 제한하는 대신 루스키와 러시아어 사용자의 이민을 지원해야 한다	69	58	20	25	7	11	4	5
노동 능력이 낮고 저학력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대신에 젊고 고학력 이민자들은 지원해야 한다	57	53	25	29	12	12	6	6

또한 WCIOM가 2013년 7월 13-14일 러시아의 42개 연방주체의 130곳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 결과(오차범위 3.4% 이내)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무엇보다

21) “Треть москвичей негативно настроена к приезжим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http://migrant.ferghana.ru/newslaw/chronicle/tret-moskvichy-negativno-nastroena-k-priezzhim-iz-drugih-stran-i-regionov-rossii.html> (2015년 1월 19일 검색)

22) ВЦИОМ (2013), “Иммиграция в Россию: благо или вред для страны?”, <http://wciom.ru/index.php?id=459&uid=114322>. (2014년 9월 25일 검색)

도 그들로 인해 범죄와 부패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65%),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한다(56%). 47%의 러시아인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수준 낮은 저임금의 일자리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응답률이 2005년 46%에 비해 2013년에는 53%로 증가하였다. 러시아 문화를 풍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며(45%),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40%).

<표 8>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다음의 각 분야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23) (단위: %)

	좋다		나쁘다		답변 곤란	
	2006년	2013년	2006년	2013년	2006년	2013년
재래시장 (식료품, 자재 등)	40	40	54	53	7	8
대중음식점	37	24	54	70	9	6
서비스업 (세탁소, 신발수선 등)	42	47	48	44	10	9
대중교통	36	25	53	68	11	7
건설업 및 수리	44	46	47	49	9	6
공공시설물 관리	39	50	49	42	11	7
의료기관	29	17	61	76	10	7
교육기관	26	13	63	81	11	6
법수호기관	23	10	68	84	9	6
지방행정 및 자치기관	21	9	71	86	8	5

러시아인들은 타민족의 이주를 반대하는 대신에 루스키(슬라브계 러시아인)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58%, 2005년의 69%에 비해서는 떨어짐), 노동능력이 떨어지거나 저학력의 이민자들을 제한하는 대신에 젊고 고학력의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53%).

23) ВЦИОМ (2013), “Иммиграция в Россию: благо или вред для страны?”, <http://wciom.ru/index.php?id=459&uid=114322>. (2014년 9월 25일 검색)

또한 러시아인들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지방행정 및 자치기관(86%), 법집행기관(84%), 교육기관(81%), 의료기관(76%) 등이다. 이들 분야는 2006년 조사 때 각각 71%, 68%, 63%, 61%였던 것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아졌다. 대중음식점(70%), 대중교통(68%), 식료품 등 재래시장(53%)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대신에 공공시설물 관리(42%), 서비스 분야(44%), 건설업(49%) 등 3D 업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다소 용인하는 분위기이다.

IV. 노동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러시아의 이민정책은 연방이민국의 활동이 본격화된 1994년에야 성립되었으며, 이전의 구소련 시기에는 국내 이주에 대한 통제와 해외 이주의 방지에 초점을 두었다. 1990년대 초기의 러시아 이민정책은 주로 구소련의 각 공화국에서 발생한 이주민의 대량 유입으로 이들의 시민권 취득의 통로 구실을 하면서 상당히 자유스러운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민 규정이 개정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쿼터제가 실시되면서 이민정책의 성격은 제한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이채문 2011, 104).

현재 러시아의 외국인 이민 정책²⁴⁾의 핵심은 쿼터제와 노동허가제를 통한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인 고용 쿼터제는 산업체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쿼터를 매매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관료주의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로 인해 노동허가증을 발급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불법 이주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4) 러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민정책의 자세한 내용은 이채문(2011), 전병국(2013)의 논의를 참고.

또한 러시아의 억압적인 이민정책으로 러시아는 불법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만 한다. 즉 억압적인 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체류민이 될 수 있는 이주민들이 불법이주민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결국 불법적으로 저질의 단순노동자로 전환되는 악순환의 덫에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 불법노동자들은 교육 등을 통해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는데 투자를 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반적인 노동력의 생산력 약화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이채문 2011, 106 재인용)

이러한 상황에서 소연방 해체 이후 20년 이상 동안 러시아의 이민정책은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책 부재로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에서야 러시아는 중장기 이민정책을 내놓았다. 2012년 6월 1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5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이민정책의 개념”²⁵⁾이라는 문서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에서 러시아 이민 정책의 목적, 원칙, 과제, 주요 방향 및 실현 메커니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매년 300-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주노동자들이 지하경제에 종사하면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도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범죄율을 높이는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 이민 정책의 방향 중의 하나는 러시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 및 전문성을 가진 젊은 이들의 이주를 장려하고 러시아 경제에서 요구되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인, 선발 및 이용을 위한 차별화된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고급 전문 인력(Highly-qualified Specialist)을 유치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연 2백만 루블 이상의

25) Федеральн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2012), “Концеп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www.fms.gov.ru/upload/iblock/07c/kgmp.pdf>. (2014년 9월 17일 검색)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쿼터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최대 3년까지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매년 비자 갱신을 위한 행정적 번거로움을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러시아 선도경제구역 설립 법에 따라, 선도경제구역에서는 외국인 전문 인력 유치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에서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법(2002년 7월 25일자 연방법)에서 규정된 조건보다 단순화된 조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치 및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노동활동 목적의 입국에 대한 초청장과 노동허가서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변현섭 2014, 64) 등 특혜가 부여된다.

규제 또는 통제 일변도의 이민정책은 러시아의 대외정책 목표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근외지역, 즉 CIS 지역 내 러시아의 영향력 확보는 러시아 대외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해 왔으며, 러시아의 사회적 국가 이익에 속하는 문제이다(김성진 2012, 218). 특히 2015년 1월부터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또한 이미 2012년 1월부터 관세동맹 3국간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발효 중에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노동을 위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자와 그 가족 구성원에게 각종 사회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⁶⁾

또한, 최근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의 금융위기로 루블화가 2014년 연초 달러화 대비 50% 이상 가치가 하락하였는데, 이는 달러화로 송금하는 이주노동자의 소득도 그만큼 하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국으로 귀환을 고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약 구소련 국가, 특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독재 국가이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 귀환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높은 실업률과 소득하락으로 인해 사회안정망이 붕괴되고 혁명과 같은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국가의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경제통합체 가입을 조건으로 더 많

26) 의료보전 및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고, 연금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EDB Center for Integration Studies 2012)

은 지원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연방 이민청에 따르면, 2015년 1월 러시아로 입국한 이주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하였다. 왜냐하면, 이민법의 변경으로 인해 구소련권 국민들도 국내용 여권인 아닌 해외용 여권을 소지해야 하고, 유료특별허가증(патент)을 발급받아야 하며, 러시아어, 역사 및 문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 이주자들의 입국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유가하락에 따른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의 가치가 기존 대비 최소 2배 이상 하락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리해졌기 때문이다(*kommersant* 2014/02/02).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업종, 특히 주택 및 공공시설물 관리, 건설 공사장 등에서는 저렴한 CIS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작업이 힘들어진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고용주들은 불법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임금을 지불하거나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가지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 범죄 발생 등이 노동자 탓보다는 당국의 무차별 강제 추방으로 러시아인과 이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 당국은 단속을 통한 무조건적인 추방보다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불법노동자들을 합법적인 노동자로 구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등 규제 일변도인 이주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할 때 고용주에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 임시거주지 제공, 사회적 안전보장 등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라시아의 주요 9개국(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의 이주노동자 및 송금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 및 학자들의 네트워크 그룹인 MIRPAL(Migration and Remittances Peer-Assisted Learning, 이주 및 송금 협력학습)을 통해 러시아의 노동환경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적합한

정교한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이 지역 국가들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하는 국가 간 협의체로 발전한다면 이들 모든 국가들의 협력과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V. 결론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외국인 이민자가 많은 국가이면서도 러시아 국민들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이민정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이주자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최근 러시아로의 이주는 1990년대 초반의 CIS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민족분쟁으로 인한 난민 또는 본국 귀환과는 달리 경제발전의 차이에 따른 소득 격차의 차이가 가장 큰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면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주의 양상과 노동시장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러시아의 이민정책도 보다 유연하고 확대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출생률의 증가 및 사망률의 감소로 인구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노동가능인구는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러시아 노동시장의 주요한 공급원이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중에는 CIS 국민이 대부분(76.1%)이다. 이들은 자국에서 경제적 빈곤과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러시아로 이주하고 있다. CIS 국가의 이주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자금을

27) MIRPAL은 2009년 세계은행이 주창하여 설립되었고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단체의 주요한 과제는 이주노동자 및 송금 규모 계산 방법론 개선, 이주노동자 유출입 관리 개선 및 CIS의 틀에서 단일이주공간 창설을 위한 조정된 이민정책의 수행과 협력 등이다.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mirpa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국으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송금액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이주 현상은 경제적으로 CIS 내 임금격차와 노동 수요의 차이라는 신고전학파의 ‘배출-흡인’ 요인들로 잘 설명된다.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구소련 국가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의 러시아 유입이 증가했지만 이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부패 문제와 함께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의 매우 위협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주를 통해 러시아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만들고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배타적 인식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즉, 정부와 국민 간에 이주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러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이면서도 이민 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미비했기 때문이다.

쿼터제와 노동허가제를 통한 규제에 초점을 둔 이민 정책 및 단속을 통한 추방과 처벌 강화 등의 억압적인 이민 정책이 불법 이주노동자를 양산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러시아 노동시장을 보호하면서도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이주노동자가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적인 자원으로써 러시아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러시아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관점에서 노동이주를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 경제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가진 젊은이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고급 전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초청장 및 노동허가의 신청에서 발급까지 1-3개월 이상 걸리는 문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시스템 도입 등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규제 일변도의 이민 정책은 구소련지역에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와도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으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규제하려는 정책은 시대적 상황과도 맞지 않다. CIS에 대한 대외정책적

관점에서 이주문제를 바라보고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모델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 참고문헌 |

- 김성진 (2008). “러시아 이주정책의 성격과 발전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pp. 521-559.
- _____ (2012). “러시아 이주의 현황과 특징: 극동연방구에 대한 경험적 분석.” 『사회이론』. 가을/겨울호, pp. 205-239.
- 김영진 (2012). “중앙아시아의 노동 이주현황과 사회, 경제적 영향.” 『슬라브연구』. 제28권. 1호, pp. 1-26.
- 김태연 (2007). “현대 러시아에서의 이주와 루스끼 민족주의: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7집. 4호, pp. 213-241.
- 변현섭 (2014).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 『슬라브연구』. 제30권. 4호, pp. 59-79.
- 이채문 (2011).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이민정책.” 『대한정치학회보』. 18집. 3호, pp. 79-110.
- 전병국 (2013). “이민자통합정책이론을 통한 러시아 정부의 이주 및 노동정책 분석 연구: CIS 출신 귀환 러시아인 이주민을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44집, pp. 485-506.
- 정재원 (2009/2010). “세계화 맥락에서의 러시아 노동이주.” 『중소연구』. 제33권. 제4호, pp. 131-155.
- 김현태 (2014). “타지크인 노동자 모스크바서 한 해 500명 사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953251>. (2014년 9월 22일 검색)
- Denisenko M. B. & Varshavskaya Y. J. (2013) “Migrants at the Russian Labour Market: Characteristics, Status, Mobility.” *WP3/21 Search Working Paper*. July.
- Evgeny Vinokurov & Vladimir Pereboyev (2013). “Labour Migration and Human Capital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Impact of Accession to the SES.” *EDB Eurasian Integration Yearbook*
- Riazantsev S. (2013). “Russia Needs a New Migration Policy.” *Russian Politics and Law* vol. 51. no. 3, p. 86.
- Weinar A. (2014). “A Look at Migrations in the Post-Soviet Space—the Case of Eastern Europe, South Caucasus and Russian Fede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vol. 52(5), pp. 47-48.

- Каплишников Р. & Ощепков А. (2014).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труда: парадоксы посткризисного развития.” Вопросы экономики, июль, р. 72.
- World Bank (2013). “Migration and Remittance Flows in Europe and Central Asia: Recent Trends and Outlook, 2013–2016.” <http://www.worldbank.org/en/news/feature/2013/10/02/migration-and-remittance-flows-in-europe-and-central-asia-recent-trends-and-outlook-2013-2016>. (2014년 9월 19일 검색)
- _____ (2013). “Migration and Remittance Flows: Recent Trends and Outlook, 2013–2016.”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INTPROSPECTS/Resources/334934-1288990760745/MigrationandDevelopmentBrief21.pdf>. (2014년 9월 19일 검색)
- Guardian (2015). “Russia’s rouble crisis poses threat to nine countries relying on remittances.”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5/jan/18/russia-rouble-threat-nine-countries-remittances>. (2015년 1월 20일 검색)
- Википедия (2014). “Налог на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https://ru.wikipedia.org/wiki/%D0%9D%D0%B0%D0%BB%D0%BE%D0%B3_%D0%BD%D0%B0_%D0%B7%D0%B0%D1%80%D0%B0%D0%B1%D0%BE%D1%82%D0%BD%D1%83%D1%8E_%D0%BF%D0%BB%D0%B0%D1%82%D1%83. (2014년 9월 26일 검색)
- ВЦИОМ (2013). “Иммиграция в Россию: благо или вред для страны?” <http://wciom.ru/index.php?id=459&uid=114322>. (2014년 9월 25일 검색)
- Заголовки (2014). “С 1 января 2015 года мигранты в России будут сдавать платные экзамены.” http://www.zagolovki.ru/daytheme/migrant_ekzamen/22Jul2014. (2014년 9월 23일 검색)
- HR-Portal (2013). “ФМС: отече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ке не обойтись без иностранных мигрантов.” <http://hr-portal.ru/news/fms-otechestvennoy-ekonomike-ne-obytis-bez-inostrannyh-migrantov>. (2014년 9월 21일 검색)
- Интерфакс (2013). “Чиновники заплатились за Бирюлево.” <http://www.interfax.ru/russia/338372>. (2014년 9월 22일 검색)
- Коммерсантъ (2013). “В результате ДТП в Новой Москве погибли 18 человек.” <http://www.kommersant.ru/doc/2233857>. (2014년 9월 22일 검색)
- _____ (2014). “ФМС России выступает за введение платного патента на работу мигрантов.” <http://www.kommersant.ru/doc/2564711>. (2014년 9월 28일 검색)

- _____ (2014). “Сумеет ли росси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обойтись без мигрантов.” <http://www.kommersant.ru/doc/2650253>. (2015년 2월 2일 검색)
- K-News (2012). “Россия отменила соглашение с Кыргызстаном об упрощенном порядке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http://www.knews.kg/politics/24733_rossiya_otmenila_soglasenie_s_kyrgyzstanom_ob_uproschennom_poryadke_polucheniya_grajdanstva. (2014년 9월 20일 검색)
- Левада-Центр (2014). “Проблемы, более всего тревожащие россиян” <http://www.levada.ru/12-09-2014/problemu-bolee-vsego-trevozhashchie-rossiyan>. (2015년 1월 20일 검색)
-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Ф (2014). “Состояние преступности в России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http://mvd.ru/upload/site1/document_file/H8NGnfdiEу.pdf. (2014년 9월 21일 검색)
- Newsland (2013).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в Россию: великое переселение рабочих. <http://newsland.com/news/detail/id/1202272>. (2014년 9월 23일 검색)
- NEWSru (2010). “Госдума ввела для гастарбайтеров платные трудовые патенты и обязательное снятие отпечатков пальцев.” <http://www.newsru.com/arch/russia/12may2010/migrants.html>. (2014년 9월 24일 검색)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осквы (2013). “Отчет 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 города Москвы в 2012 году.” http://s.mos.ru/common/upload/2012-130430_1.pdf. (2014년 9월 15일 검색)
- РИА Новости (2014). “Более трех миллионов мигрантов пройдут тестирование в РФ в 2015г.” <http://ria.ru/society/20140922/1025103642.html>. (2014년 9월 23일 검색)
- _____ (2014). “Москва откроет пункты самоподготовки к экзаменам для мигрантов.” <http://ria.ru/society/20140731/1018233327.html>. (2014년 9월 20일 검색)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4).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прогноз до 2030 года.”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tat/ru/statistics/population/demography/#. (2014년 9월 15일 검색)
- _____ (2014). “Компоненты измене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www.gks.ru/wps/wcm/connect/rosstat_main/ross

tat/ru/statistics/population/demography/#. (2014년 9월 15일 검색)

Федеральн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2012). “Концеп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http://www.fms.gov.ru/upload/iblock/07c/kgmp.pdf>. (2014년 9월 17일 검색)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2013). “Труд и занятость в России.” http://www.gks.ru/bgd/regl/b13_36/Main.htm. (2014년 9월 15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5년 02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3월 09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3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1 (2015)

Problems of labor migrants in Russia and policy issue:

Focusing on labor migration between CIS countries

Hyun Sub Byun and Young Jin Kim

(Asia-Pacific Research Center,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recent change of labor migration in Russia in terms of the pull-push model and dual labor market theory. And we look at the perception of Russians to the labor migrants and relating issues and problems caused by them, and raise need of a new approach to the policies of labor migration.

Russia, a second largest country in terms of the number of labor immigrants following to the United States, is experiencing population shrinking, particularly in terms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influx of labor migrants is inevitable due to the reduction of population. And Russia is constantly requiring low-wage unskilled labors who are willing to work in the second labor market with poor wages and insecure work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unemployed people in the post-Soviet countries, as the main sources of labor migrants, come to Russia to find jobs based on individual rational choice for better wages and for livelihoods of families.

The number of labor migrants in Russia from the post-Soviet countries increased by the result of mutual interests, but the influx of labor migrants in Russia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and many Russians have a negative perception on the labor migrants. Russia's repressive immigration policy, including deportation and enforcement

penalties, which is focused on the regulation by means of quota system and working permission exacerbates the problems caused by massive illegal labor migrant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ursuit a new approach of migration policy for the change of recognition that labor migrants can play a positive role in the Russian communities as the potential resources for long-term economic growth. In other words, Russia should consider the labor migration as a method for long-term sustainable socio-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a means of solving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It is also the time to develop sophisticated policy models that can contribute to th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with these CIS countries and to see the migration issues in perspective of foreign policy towards CIS countr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launch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 Key words: Labor Market, Labor Migration, Labor Migrant, CIS, Migration Policy